

구비문학의 역사적 의미

- 항몽 김통정 설화를 중심으로 -

문 순 덕*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맺음말 |
| II. 김통정 설화의 역사적 의미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구비문학이란 예로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뜻하며, 그 중 제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김통정 설화는 항몽 관련 구비문학에 속한다.

『고려사』를 보면, 삼별초(三別抄)는 몽골과 정부가 항전한 후 개경 환도를 강행하자 강화도를 떠나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김통정이 장수로 등장하며 고성리 향파두리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몽연합군과 대치하다가 멸망하게 된 이 이야기들이 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또 하나 김통정 설화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당본풀이를 들 수 있다. 김통정은 역사적 인물이나 설화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아서 역사와 실재의 간극이 없음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삼별초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김통정 설화가 구비문학 자료로 문학적 연구와 병행하여, 역사적 사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사 연구의 기능도 있음을 들여다보았다.

김통정 설화는 주로 삼별초와 대몽항쟁 관련 역사 연구의 자료로 선택해 왔으나 여기서는 구비문학 자료가 역사적 의미로 재해석됨을 보았다. 즉 제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항몽 관련 설화 채록본과 추가 조사를 통하여 삼별초와 김통정 관련 이야기,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야기,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 관련 이야기,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비설화와 전승 지역을 살펴 보았다.

구비전승의 가치란 향몽 관련 설화처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본 화소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주제어 : 구비문학, 향몽, 구비전승, 삼별초, 김통정, 영웅설화, 날개 달린 장수

I. 머리말

구비문학이란 예로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뜻하며, 그 중 제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김통정 설화는 향몽 관련 구비문학에 속한다. 김통정은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주도한 역사적 인물로 그의 영웅담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영웅담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제주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채록본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삼별초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김통정(金通精) 설화의 전승 내용과 전승 지역, 전승 정도 등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¹⁾ 이는 사료와 자료의 부족을 메워주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는 구비문학의 연구가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김통정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구비문학 자료에는 문학적 연구와 병행하여, 역사적 사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사 연구의 기능도 있음을 찾아보고자 한다.

삼별초(三別抄)는 고려 원종 11년(1270)에 몽골과 정부가 항전한 후 개경 환도를 강행하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화도를 떠나 진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김통정이 장수로 등장하며 약 3년간(1271-1273) 고성리 향파두리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몽연합군과 대치하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이 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삼별초와 김통정의 역사적 사실과 영웅적인 이야기는 1970년대 민족의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향파두리 향몽유적지’가 조성되면서 부각되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관련해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 인물이 설화의 주인공으로 전승되고 있어서 역사와 허구의 거리를 넘나드는 역사설화로 인식될 수 있다. 삼별초군은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

1) 문순덕, “제주의 향몽 관련 구비전승”,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계획』 (북제주군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2)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정하였다.

주도로 들어와서 현재 고성리(제주시 애월읍 소재)에 ‘항파두리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해서 여몽연합군과 전쟁을 치른다. 김통정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지역민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토성을 쌓았고, 최후는 죽음으로 설정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영웅설화의 구조와 유사한 김통정 설화는 1950년대 이후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구비문학 자료를 통해서 전승 지역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김통정은 역사적 인물이 설화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아 역사와 실재의 간극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본다.

김통정 설화는 주로 삼별초와 대몽항쟁 관련 역사 연구의 자료로 선택해 왔으나 여기서는 구비설화를 통해서 김통정 장군의 활약상, 당대 제주민들의 노역 동참정도,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에 대한 역사 인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구비문학 자료가 역사적 의미로 재해석됨을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기존에 조사채록된 항몽 관련 구비전승 자료²⁾를 1차로 보고, 2차로 현장조사한 자료의 화소와 지역별 전승 현황을 1차 자료와 비교하여 항몽 관련 전승 요소 등을 분석함으로써 구비문학의 생명력을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김통정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항몽 관련 구비전승 자료는 김통정 설화가 주 내용이며 기존에 채록된 자료를 1차 자료로 분석하였다. 1차 자료가 조사된 지역도 현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전승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 광령, 우수암, 장전, 상귀, 하귀’ 등을 2차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다른 마을도 확인해 보았지만 구전되는 내용이 너무 막연해서 조사 지역에서 제외했음을 밝혀 둔다.

1. 항몽 관련 1차 구비설화

제주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항몽 관련 설화로는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입도, 여몽연합군과 대치 상황, 김통정 장군의 죽음 등이 있으며, 채록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이 설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 글에서는 삼별초 관련 구비전승 자료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해서 전개하고자 한다. 기존에 조사채록된 자료를 1차 자료라 하고, 2002년에 새롭게 채록한 자료를 2차 자료라 하였다.

1) 삼별초와 김통정의 이야기

삼별초군이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까지 김통정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향파두리성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김통정이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출현한다. 김통정을 위시한 삼별초군은 외부에서 들어온 군대이며, 이들의 출신지는 개성으로 설정되었다. 김통정이 삼별초의 수뇌로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인물 설화로 설정되었다고 본다.

제주지역에서는 삼별초군과 김통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김통정을 다른 설화가 곧 삼별초의 대몽 항쟁과 관계된 설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통정 중심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현용준(1976)과 진성기(1978)에 수록된 채록본이 김통정 설화 채록자료의 시초이다.

다음은 삼별초군의 활약과 멸망 과정을 알 수 있는 설화로 현용준(1976)에서 정리해 보았다.

[고려 때의 일이다. 한 과부가 있었다. 과부는 온몸에 비늘이 돋아 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은 아이를 낳았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 하여 ‘지렁이 진’자 성(姓)을 붙이고 ‘진통정’이라 불렀다(혹은 지렁이의 ‘질’음을 따서 ‘질통정’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 아이가 바로 김통정(金通精)인데, 성이 김씨로 된 것은 김씨 가문에서 ‘진’과 ‘김(金)’이 비슷하다 해서 자기네 김씨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道術)을 부렸다. 그래서 삼별초(三別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토성을 쌓았다. 흙으로 내외성(內外城)을 두르고 안에 궁궐을 지어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한 것이다.

어느 해 김방경(金方慶) 장군이 거느리는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왔다. 김통정 장군은 사태가 위급해지자 황급히 사람들을 성안으로 들여놓고 성의 철문을 잠갔다. 이때 너무 급히 서두는 바람에 아기엽개(아기엽저지) 한 사람을 그만 들여놓지 못하였다. 이것이 실수였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이 너무 높고 철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도리가 없었다. 이때 아기엽개가 나타나서 열나흘 동안 쇠문을 녹이라고 일러주었다. 이 래서 아기엽개 말도 들으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김통정 장군은 곧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았다. 이때 김통정 장군은 죽어 가면서 ‘내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 하며 뱀을 신은 발로 바위를 팡 찍었다. 바위에 뱀 발자국이 움푹 파이고 거기에서 금방 샘물이 솟아 흘렀다. 이 샘물이 지금도 있는데 **햇부리** 또는 **햇자국물**이라 한다.

김통정 장군의 처가 죽을 때 피가 일대에 흘러내려 흙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붉**

은오름이란 이름이 생겼다.]³⁾

1975년에 채록된 김통정 설화의 주 내용은 ‘김통정의 부모, 고향, 신이한 출생, 작명 이유, 삼별초군의 제주 입도 과정,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관계, 토성 구축 과정, 삼별초군의 대패 과정, 날개 달린 장수의 비극적인 종말, 역적 가족의 최후, 아기엽개 속담, 장수물, 붉은오름’ 등이며 김통정 장군의 일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약 75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구비문학으로 전승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에 따라서 긴 이야기에서 여러 개의 화소로 분리되거나, 내용에 가감이 생긴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는 김통정의 신이한 출생담을 보여준다. 즉 김통정을 신화적 인물로 설정한 출생담을 보면 영웅설화의 모티브가 반영되어 있다. 김통정의 신이한 출생을 통해서 날개 달린 아기장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즉 현용준(1976)에서는 김통정의 모친이 과부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용준·김영돈(1983)에서는 처녀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제보자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옛날 부잣집에 **딸**이 있었는데 밤마다 어떤 도령이 와서 자고 간다. 이 사실을 알 아차린 아버지가 **명주실**을 이용해서 도령이 **지령**이라는 실체를 밝힌다. 태어난 아이는 **날개 달린 장수**였는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다.]⁴⁾

다음 이야기에서 보듯이 김통정 모친의 고향은 고려가 아니고 중국으로 설정되었다. ‘처녀’, ‘지령이’의 등장은 다른 것과 동일하다. 영웅설화의 기본 요소인 고귀한 혈통이며, 비정상적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준다. 채록본은 동일하나 제보자와 제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야기가 변형되고 있다.

[**김통정 장군**의 어머니는 **중국** 조정승의 딸이라 한다. **처녀** 때에 별초당(別草堂)에

3)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에 수록된 설화로 1975년 애월읍 고성리에서 채록한 것이다. 『남국의 전설』(진성기, 학문사, 1978)에는 1957년(한경면 고산리 진용도)에 채록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용준과 같은 내용이다. 현용준(1976)과 진성기(1978)에 있는 김통정 설화의 줄거리는 동일하고 이 채록본의 이야기들이 일부 화소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4) 현용준·김영돈(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도 서귀포사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덕면 덕수리에서 조사되었다.

서 공부하다가 그 자리에 자곤 했는데, 밤에 어떤 남자가 출입하여 임신을 했다. 남자의 몸에 실을 묶어 확인하니 **지렁이**가 남자로 변하여 찾아오는 것을 알았다.]⁵⁾

다음은 김통정의 부친이 주녕이(지네)로 설정되어 전해온다.

[그 부락에 원래 김씨덜이 만혀여요. 김씨덜이 만혀고 사름덜이 원래 어린 때부터 영글어지고 똑똑하니 이것은 내 성을 씨어 주자 해서 **김가**를 썼는데, 그래 **주녕이**를 통해 난 건 김통정이 틀림없어요. 게서 일흠조차가 주녕이혀고 낫다고 해서 **김통정**이라 하는 겁니다.]⁶⁾

이상으로 김통정의 신이한 출생 관련 설화 채록 지역을 보면, 애월읍 고성리, 제주시 용담1동, 안덕면 덕수리, 한림읍 옹포리 등이다. 삼별초군의 장수인 김통정의 출생담은 민중 영웅의 설화와 유사하다. 김통정 설화는 삼별초의 제주 입도 과정, 정착, 역할, 생애담 등으로 구성된 한 편의 이야기이며, 이 줄거리들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삼별초의 항쟁은 역사적 사건이며, 김통정은 역사적 인물이나 설화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이야기

삼별초군대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고성리(제주시 애월읍 소재)에 토성을 쌓을 때의 고통과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노동 장면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고성리 인근 마을사람들이 역부로 강제 동원되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이 설화처럼 역군들의 생활이 비참했다면 김통정을 위시한 삼별초군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이다.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었다 한다. 그래서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人糞)을 먹었다. 자기가 쭈그러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보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⁷⁾

5)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이 설화는 채록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지만 1976년도에 발간된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시 용담1동에서 조사되었다.

6) 김영도·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 자료는 1984년에 채록되었다. 한림읍 옹포리에서 조사되었다.

7)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이 자료는 1975년에 채록한 것이다. 애월면 광령리에서 조사되었다.

[김통정이 제주도 와서 항거한 것이 딱 2년 반이여. 내가 계산해보니까 2년 반인데, 2년 반 사이에 거의 다 토성을 쌓아졌느냐 하는 게 문제로되, 제주도민을 전부 모여갔고 이제 동원시켜서 **토성**을 쌓아 노니깐 백성은 먹을 것도 없고 그디 강 그 일만 자꾸 시켜 노니 그 당시에는 일하다가 대변을 보고 싶으면 **대변**, 대변을 보아서 그 대변을 돌아앉아서 봐릴(볼) 겨를 없었다고 해. 어떤 놈이 지켜 섰다가 확 주워 먹어 버린단 말이여. 얼마나 함악한 살림을 살아왔기에 그러한 전설이 남았느냐 하는 거지.]⁸⁾

김통정이 원나라에 대항하여 제주도로 와서는 토성을 쌓게 되었다. 그런데 이 토성 쌓기에 동원된 제주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토성 쌓는 도중 똥을 싸면 자기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가 와서 주워 먹었다는 얘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노역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 관련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삼별초군의 전투 과정을 알려 준다. 삼별초군이 제주도에서 세금을 받기는 했는데 곡식으로 받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로 거두었다. 토성을 축조하거나 재를 공출하면서 제주도민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몽항쟁이면서도 전쟁의 피해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김통정 장군이 마을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재** 한 말뚝을 받아서 성 주위에 쌓아뒀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고 재를 뿌리면서 성 위를 달리게 해서 적으로 하여금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적이 침입하면 도두, 연대, 고성 순으로 봉화를 피워서 사람들에게 알렸다.]⁹⁾

4)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삼별초군의 몰락을 앞당긴 주인공으로 아기업개가 등장한다. 즉 여몽연합군이 삼별초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기업개라는 하찮은 사람에 의해서 삼별초군대가 패배함을 보여준다. 즉 아기업개가 토착세력인 제주민인데 삼별초군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별초군과 제주민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백록어문학회(2001), 『백록어문』 17. 이 자료는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2000년에 채록한 것이다. 제주시 외도1동에서 조사되었다.

9) 백록어문학회(2001), 『백록어문』 17. 제주시 외도1동에서 조사되었다.

[김통정 장군이 여몽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늦쇠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다가 이중 삼중으로 철문을 해서 성을 지키는데 연합군이 그 성을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김통정 장군 휘하에 있던 업저지 하나가 그 철문 부수는 방법을 말해줘서, 그 성을 공략했다. 그 이야기에서 **아기업개(아기 업저지) 말도 들어라**하는 말이 유래되고 있다.]¹⁰⁾

위 설화에서 보듯이 아기업개의 반란으로 김통정은 죽게 되나 뒤이어 아기업개의 최후도 드러난다. 즉 여몽연합군이 삼별초군을 물리친 후에 아기업개에게 보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적장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을 몰살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패배한 장수와 그 가족의 비극적인 최후를 알 수 있다.

아기업개가 김통정 장군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라는 설화도 있다. 이 설화대로라면 김통정은 항파두리에서 현지인 즉 제주여인과 결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김통정과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다음 설화는 김통정의 제주 입도 목적이 현용준(1976)과 다르게 전해지고 있으며, 삼별초군의 항몽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설화이다.

[옛날 중국 어느 왕이 밤에 달구경을 나왔다가 **말 울음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그 울음소리는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대신들에게 그 말을 잡아오도록 하자, **김통정**이 자진하여 나섰다. 제주에 상륙한 뒤 물장우리에서 그 말을 잡았고, 곧 백성들에게 포고하여 서울로 진상을 바치지 말게 했다. 대신 김통정에게 빗자루 세 개와 재만을 바치면 그만이었다. 중국에서는 김통정이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김통정을 잡아오도록 여러 장수를 보냈다. 그러나 김통정이 재를 뿌리고 빗자루를 말꼬리에 매달아 먼지를 내면, 제주도 온 섬이 안개에 싸여 상륙할 수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중국에서는 신장(神將) 둘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몰래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뒤늦게 이를 안 김통정은 성문의 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않았다. 신장들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서성거리고 있으려니,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느 **아기업개**가 숲으로 성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곧 철문을 녹이고 들어가니, 김통정은 **관탈섬**으로 날아가 버렸다. 신장들은 모기가 되어 김통정의 귓가를 맴돌다가 김통

10) 김영돈·현용준·현길언 (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 자료는 1983년에 채록하였다. 애월읍 광령1리에서 조사되었다.

정의 약점을 알고 칼로 내리쳐서 죽였다.]¹¹⁾

이 이야기는 김통정 장군이 중국의 신화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른 설화에는 고려 신화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김통정의 국적이 중국이나 고려로 설정된 것은 삼별초군대가 조직된 것이 고려, 몽고와 연관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후 제주도가 몽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제주사람들은 김통정의 출신을 중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김통정의 국적이 고려든 중국이든 제주도에서 활약상은 비슷하다.

이 설화는 앞에 제시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김통정의 최후, 성문 녹이는 지혜, 재 뿌리는 장면’ 등 동일한 설화인데 공통 화소에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었다. 여기서는 김통정 장군이 제주도에 오게 된 동기가 한라산에 있는 영특한 말을 잡으러 온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통정이 몽고를 배신함에 따라 결말은 다른 설화의 최후와 비슷하다.

삼별초군의 최후는 김통정의 최후와 일맥상통한다. 여몽연합군에게 쫓길 때에 김통정에게 날개가 있다느니, 붉은오름에서 전사했다느니 하지만 민중 영웅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준다. 이러한 설화는 김통정이 비범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삼별초군이 끝내 패배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런 비극적인 요소 때문에 삼별초군이 대몽항쟁의 시각에서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김통정 또한 민중 영웅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본다.

[**김통정**은 한 번 침실에 들면 한 달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잤다. 어느 날, 김통정의 드살이(머슴)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나타나 장군을 잠자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머슴은 이 꿈 이야기를 잠자는 김통정 장군에게 말하러 가니, 평소 오만한 기질이 있는 머슴이라, 장군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다. 이 것이 원한이 되어 김방경 장군에게 김통정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다.]¹²⁾

이 설화에서는 김통정을 배반한 것이 아기업저지가 아니고 머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화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고 있으나 삼별초의 멸망에 일조한 인물이 아기업저지든 머슴이든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신분이다. 단순한 동기 때문에 한 장군이 몰락

11)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 자료는 1984년에 채록되었다. 애월읍 어음1리에서 조사되었다.

12)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이 자료는 1960년에 채록한 것이다.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기업 저지와 마찬가지로 머슴 역시 제주민으로 짐작된다.

6)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삼별초 관련 지명으로는 김통정 장군 설화에 나오는 지명만 다루었다. 즉 화살터와 붉은오름, 안오름(고성리), 장수물(고성리, 어음1리) 관련 전설이 전한다.

[김통정 장군이 활을 쏜 자국이 고성리엔 지금도 남아 있다.]¹³⁾

앞에서 논의한 김통정 설화 1차 구비전승 자료의 화소별 분포 지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항몽 관련 1차 구비설화와 전승 지역

김통정 설화 분석	전승 지역
삼별초와 김통정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안덕면 덕수리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옹포리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이야기	애월읍 광령리, 제주시 외도1동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 관련 이야기	제주시 외도1동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애월읍 광령리
김통정과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애월읍 어음리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애월읍 어음리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김통정 설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이(神異)하게 태어나나 출생 순간 비극이 내포되어 있으며, 고향을 떠나 제주도로 들어와서 장수가 되었으나 죽음에 이른다는 영웅의 일대기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여몽 연합군과 대항했던 삼별초군과 그 우두머리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설화의 주인공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비극의 주인공이나 설화 속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예우하고 싶었던 제주민들의 염원이 구비문학으로 전승된다고 볼 수 있다.

13)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이 자료는 1975년에 애월읍 애월리에서 조사되었다.

2. 향몽 관련 2차 구비설화¹⁴⁾

1) 삼별초와 김통정 이야기

다음은 삼별초군의 입도 경위가 드러난 이야기이다. 제주민들은 삼별초군대가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와서 항전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김통정은 **몽고인**인데 저항해서 한반도로 들어온 몽고왕족이라고 들었지만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확실하게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 가족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 여몽 연합군에 밀려서 진도까지 왔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탐라**에 왔다는 정도이다.]
(장전리)

1차 구비전승 자료에서 이미 삼별초와 김통정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2차 구비전승 자료에도 김통정의 출생담을 알 수 있는 영웅설화의 요소가 들어있다. 즉 김통정의 출생부터 최후까지 모두가 비범한 이야기이다. 밤에 어떤 남자가 찾아온다는 ‘아래자(夜來者)’ 전설은 김통정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삼국유사 권 2: 민간설화』에서 보면 견훤의 출생 역시 지령이의 자손으로 되어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 과정을 통해서 그 인물의 비범함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그 어머니가 과부나 처녀로 설정된 것에서 출생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도 알 수 있다.

김통정의 아버지가 ‘지령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한 지역에서는 ‘주녕이(지네)’로 전해지고 있다. 지령이든 지네든 땅속에 사는 동물로 설정한 것은 땅의 지력을 이어받은 영웅으로 생각한 것 같다. 즉 김통정 설화는 지신(地神)의 후손임을 암시하는 지신계(地神系) 설화로 볼 수 있다.

14) 2차 자료는 모두 2002년에 확인하고 채록해서 정리한 것이다. 고성, 우수암, 광령, 장전에서 김통정 관련 설화 내용이 풍부하고 상귀, 하귀리에서는 단편적이었다. 조사 지역에서 만난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인데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하귀리(동귀리)에서는 기록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어서 기록하지 않았다. 2차 자료 채록 시에 여러 제보자들이 성의껏 이야기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2차 자료 조사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진용성(남, 1919년생, 고성리), 강 정(남, 1923년생, 고성리), 양재수(남, 1924년생, 광령1리), 강조숙(여, 1925년생, 광령1리), 고이열(남, 1926년생, 장전리), 안태영(남, 1927년생, 장전리), 강량표(남, 1928년생, 장전리), 김용진(여, 1928년생, 용담2동), 홍 윤(여, 1929년생, 하귀2리), 홍운배(남, 1935년생, 상귀리), 문선희(남, 1937년생, 고성리), 김영숙(여, 1938년생, 상귀리), 김동진(남, 1938년생, 하귀2리), 강충희(남, 1939년생, 우수암리), 김정자(여, 1940년생, 하귀2리), 신성식(남, 1963년생, 애월리)

2차 자료에도 김통정의 신이한 출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다음은 김통정 출생의 비밀부터 최후까지 갈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통정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추앙받던 장수의 죽음을 엄숙히 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최후에 대한 설화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1차 자료에는 김통정 어머니가 남자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 죽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김통정이 직접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통정 어머니가 **개성** 출신으로 **홀어머니**였다. 김통정이 어느 김씨인지 기록이 없고, 다만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밤이면 어떤 남자가 와 가지고 김통정 어머니와 **통정한다**. 김통정 어머니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실을 부락 촌장한테 말한다. 부락 촌장이 하는 말이 다음에 “남자가 오거든 몸에 실을 묶었다가 내일 찾아가 보아라.” 했다. 그대로 했다. 다음날 김통정 어머니는 실을 따라 찾아가 보니까 **지렁이**가 있었다. 김통정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김통정이가 10살이 넘어서 그 지렁이를 밟아서 죽여 버렸다. 김통정은 그 지렁이가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죽여 버렸다. 그래서 패배할 때 지렁이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성리)

다음은 김통정의 비정상적인 출생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는 김통정 설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1차 자료와 동일하다. 제보자는 설화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수암리 제보자는 삼별초 관련 설화의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우수암과 고성은 인근 마을이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2차 자료와 1차 자료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시간이 흘러도 공통 화소가 이야기 속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전설로 들은 것은 **김통정**이 아니고 **진통정**으로 들었다.

김통정 어머니가 밤에 자는데 자꾸 어떤 큰 **젊은 남자**가 와서 같이 자고 갔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말하니까 “도포자락에 바늘로 실을 꿰매 뇌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밤에 같이 자다가 도포자락에 실을 꿰매 다음 아침에 실을 따라 가보니까 어떤 돌 밑으로 실이 들어갔다. 돌을 들어 보니까 큰 **지렁이**가 있었다. 지렁이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렁이 ‘진’자 해서 **진통정**이라 했다. 그런데 지렁이 진자가 어떤 자인지는 알 수 없고 아무튼 이런 말만 들었다.](우수암리)

다음은 날개 달린 장수 김통정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김통정이 날개 달린 비범한 장수로 출생하면서부터 비극적인 최후가 예견된다.

[김통정의 출생 전설은 못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몸에 **비늘**이 있고 **날개**가 있었다고 들었다.](광령1리)

이상으로 김통정 설화를 보면 영웅설화의 화소가 거의 들어있다. 즉 사람과 지네의 통정으로 태어난다. 자아 찾기를 시도해서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집을 떠난다. 삼별초군대의 우두머리가 된다. 삼별초군이 멸망하면서 김통정도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다. 다만 결말이 조금 다르다. 이것은 혁명이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데,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서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것과 유사하다.

고려정부가 승리하면서 삼별초군은 전멸하고 최고 통수권자인 장군의 최후 역시 비상하게 설정되었다. 김통정의 최후가 베일에 싸인 것은 민중적인 영웅을 평범하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라는 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다고 되어 있다. 제주바다를 건너면 고려의 땅이다. 제주도에서 반란군으로 저항하다가 최후에는 여몽연합군에게 대패하는 결말은 삼별초의 멸망과 관계있다. 김통정은 해상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었지만 삼별초군의 몰락과 더불어 비운의 장수가 된다. 삼별초군의 저항과 좌절에서 김통정의 죽음을 미완으로 처리했다. 김통정의 죽음이 제주민의 좌절이라면 그의 사후가 모호한 것은 김통정이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저항의식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구비전승 자료에서 보듯이 김통정의 최후가 불운한 것은 삼별초군의 최후가 비참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이야기

삼별초군이 제주도에서 토성을 쌓을 때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 식량이 부족해서 자신의 인분도 먹기 어려웠다는 등 고통스런 이야기는 마을마다 비슷하다. 다만 지역별 분포를 보기 위해서 모두 제시했다.

삼별초군의 토성 쌓기 화소는 고성리, 유수암리, 상귀리, 장전리, 광령1리 마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향몽 관련 구비전승에서 토성을 쌓을 당시 삼별초군과 제주민 간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토성 쌓기의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토성을 쌓는데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했다. **토성**을 쌓을 때 고생하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광령1리)

[**토성**을 쌓을 때 **식량**이 부족해서 자기가 싼 똥을 식기 전에 먹을 정도로 못 살게 굴었다. 외도 사람들도 와서 토성을 쌓았다고 들었다.] (고성리)

[항파두성을 쌓을 때 유수암은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인근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고 힘든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김통정 장군이 군대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 먹을 식량이 없어서 **자신의 배설물**을 남지 먼저 먹을까 봐서 식기 전에 빨리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유수암리)

[토성을 쌓을 때 **역군**으로 뽑혀가서 고생을 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본인의 대변을 먹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생했지만 “김통정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다.] (상귀리)

[토성을 쌓을 당시는 장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 당시 제주도민이 2만명이 있었다. 제주도 사람이 전부 동원되었다. **토성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 특별히 토성 쌓기에 동원되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전리)

이상의 구비전승 자료를 통해서 삼별초군과 지역민들이 토성 쌓기에 동원되었고,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지역은 광령1리, 고성리, 유수암리, 상귀리, 장전리 등 항파두리성이 있는 인근마을임을 알 수 있다.

3)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 관련 이야기

다음은 삼별초군의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설화로 1차 구비전승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 제주도민이 삼별초군에 협력한 이유로 삼별초군의 항몽의식과 제주도민이 고려정부에 대한 반감에 공감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삼별초군의 입도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삼별초 군대가 토성에 주둔하면서 민가에 많은 부담도 시켰다. 제주도 전체에서

식량, 재, 숯가루 등 한 집에서 몇 말씩 전부 공출로 받았다. **말꼬리에 재**를 매달아서 위장전술을 썼다. **재를 공출**로 받을 정도이고 토성 쌓는데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삼별초에 대한 원성은 크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여기를 탐라국이라고 해서 동떨어져 있으니까 조정의 소식도 듣지 못했다. 몽고군이 침입하니까 백성들도 어느 정도 용기를 내어서 삼별초군에 협력했다.] (광령1리)

[**말꼬리에 재**를 뿌려서 위장했는데 이 재를 공출했다.] (장전리)

삼별초군의 전투 상황에서 필요한 군수품인 재를 인근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비록 제주민이 향몽 의식을 지냈다고는 해도 군사주둔지에서 식량이나 군수품을 공출한다는 것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4)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삼별초군과 여몽연합군의 전투 과정과 삼별초군의 패배 이유가 ‘아기업개’라는 현지인의 계략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의 화소는 동일하고 고성리, 유수암리, 광령1리, 장전리에 분포되어 있다. 아기업개의 반란을 보여주는 화소 역시 내용의 가감 없이 그대로 구전되고 있다.

또한 삼별초군이 멸망하면서 그 장군인 김통정의 최후가 영웅설화처럼 베일에 쌓여 있다.

[삼별초군이 토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아기업개**를 남겨두고 성문을 닫아버렸다. 연합군이 성문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이 아기업개가 말하길 두 일뤼 열나흘(14일) 동안 불을 때면 쇠문이 녹아서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해준다. 아기업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은 결과 마침내 쇠문이 녹아서 내성(궁궐)으로 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김통정 일파는 남쪽으로 도망가서 **붉은오름**으로 도망갔다. 그후 김통정은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 (고성리)

다음은 삼별초군의 일원인 아기업개가 적자인 김방경 장군에게 삼별초군의 약점을 누설해서 삼별초군의 몰락에 일조한다는 이야기이다.

[김방경 장군이 성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절문을

했던 모양인데 “철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아기업개**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더니 철문을 녹일 수 있었다. 아기업개 말을 듣고 토성을 **함락**시켰다.] (유수암리)

[김통정 장군이 토성의 철문을 걸어 감았다. **김방경** 장군은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철문을 부수고 삼별초군을 무찔렀다.] (광령1리)

[김통정이 성을 축성해서 썬문을 달았다. **김방경**이 **아기업개**의 도움으로 성문을 녹일 수 있었다.] (장전리)

5) 김통정과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항몽 관련 구비설화에서 보듯이 김통정은 날개 달린 비범한 장수로 설정되어 있고, 그의 최후는 비극으로 끝난다. 김통정이 날개 달린 새로 변하는 도술이 있고, 그 새를 쫓는 김방경 역시 모기로 변하는 도술이 있다. 결국 김통정이나 김방경은 장군으로서 영웅의 기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김통정이 항파두리성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양도, 추자도, 관탈섬 등 제주도 주변 섬으로 설정한 것은 삼별초군의 최후 항전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여몽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역적의 최후가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통정 최후 관련 설화는 고성리, 유수암리, 장전리, 하귀, 광령 등 2차 조사 지역에서 온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보았다.

김통정의 최후가 미완으로 마무리되는데 주로 모기로 변한 김방경을 피해 관탈섬(또는 추자도)으로 날아갔다가 죽었다. 또는 한강물에 방석을 던져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김방경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설화가 있다. 김통정의 최후 이야기에는 ‘장수발자국, 장수물’이 등장한다. 이는 제주민들을 위해 식수를 마련해 주었다는 선행으로 해석된다.

삼별초군의 최후를 보여주는 설화에서 김통정 장군은 비늘도 있고 날개가 있는 장수로 전승되고 있다.¹⁵⁾

김통정의 최후가 붉은오름이나 관탈섬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통정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지만 가족이나 무덤 등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날개 달린 장수로 영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 하귀2리에서 만난 제보자는 ‘김통정 장군’ 관련 설화를 자세히 들었거나 기억하는 내용은 단편적이며, “큰 거인이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다.

[김통정 최후는 **모기**가 와서 앵앵거리서 그 모기를 잡으려고 팔을 들었는데, 그때 칼에 찔려 죽었다. 그곳이 붉은오름이다.](장전리)

[방석을 바당(**관탈섬** 정도)에 던져서 그곳으로 **날아가서** 죽었다.] (장전리)

[김통정 장군이 **관탈섬**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하귀2리)

다음은 김통정 가족의 최후를 알려주는 ‘종신당’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종신당 설화를 통해서 혁명이 실패하게 되면 그 가족의 생사 역시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의 죽음이 베일에 싸여 있듯이 그 가족의 최후도 마찬가지다. 다만 김통정 어머니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종신당’ 이야기가 전한다. 이 ‘종신당’ 설화는 고성과 우수암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

[항파두성 함몰 직전에 김통정 장군 모친이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여기 우수암 천이 흘러가는 어느 양자바른 곳에 와서 **토굴**(흙과 돌) 짓고서 거기서 여생을 마쳤다. 삼별초 군이 망하고 나니까

“이 토굴에 불빛이 꺼지거든 문은 막아달라.”

라고 유언했다. 속설에는 김통정 장군의 **모친**이라고도 하고, 김통정 장군 **장모**라고도 들었다. 두 분 다 왔는지 몇몇 수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해서 속칭 **종신당(終身堂)**이라고도 부른다.] (유수암리)

[김통정 어머니는 **금덕쪽**에 모셔졌다. 우리식구는 내 칼로 죽이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저쪽에 가서 모셔라 해서 굴에 모셨다. 어머니가 **토굴**에서 지낼 때 눈비 아기풀 기름으로 불을 켰다. “굴에 불이 꺼지거든 나 죽은 줄 알라.” 라고 했다. 밖에서 불빛이 안 보이니까 죽었구나 생각해서 굴 밖에서 굴 입구를 막았다. 김통정 어머니는 사녀(士女)와 함께 살다가 죽었다.] (고성리)

광령리에서는 ‘김통정 가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광령리는 고성 인근 마을이지만 김통정 어머니나 가족의 설화 화소가 없다. 다만 우수암에는 ‘종신당 터’가 있어서 설화가 살아있는 것이고, 고성리는 김통정 설화의 본거지여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 정도이다.

2002년 조사 당시에는 과수원이라 ‘종신당 터’를 알아보기가 어렵고 밭담으로 사용한 돌조각을 조금 볼 수 있는 정도였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1회 종신당 터를 찾아가 보았는데 밭으로 변경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서 지금은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6)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다음은 향파두리성이 1970년대에 향몽유적지로 정비되면서 삼별초, 김통정 등 삼별초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삼별초와 관련이 있는 지명인 ‘장수물’ 관련 설화는 하귀2리, 고성리, 장전리, 상귀리, 애월리 등에서 전승되고 있다. 주로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에서 유래하며 마지막으로 제주민들을 위해 식수를 제공해 준 선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김통정 장군이 키가 아주 커서 밭 한쪽은 **관탈섬**에 놓고, 다른 한쪽으로 밟은 곳이 **장수발자국**이라 했다. 그렇게 거인이라고 들었다. 그 장군이 밟은 자리에서 나오는 물을 **장수물**이라 들었다.] (하귀2리)

[**장수물**이 김통정의 **발자국**이라고 들었다. 김통정 장군이 싸우다 도망치다가 뛰어들었는데 그때 생긴 발자국이다] (상귀리)

[몽고군이 쳐 들어왔을 때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도망갈 때 생긴 발자국이며 **장수물**을 먹으면 속병(위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었다.]¹⁶⁾(애월리)

‘장수물’은 김통정의 최후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다루었다. 날개 달린 장수와 장수발자국은 널리 분포된 화소이다. 김통정 관련 지명 설화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수물’이다. 김통정이 날개 달린 장수로 인식되었지만 최후는 비참하게 전승되고 있다. 삼별초군대가 멸망하면서 당시 제주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식수는 아주 중요하다. 향파두리 주변에서 ‘식수’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토성 주변 전쟁터 주민들에게 보상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아기업개가 제주민을 대변한다고 하면 아기업개의 배신 즉 제주민의

16) 제보자는 초등학교 때 제주시 내도동에 살았으며, 어린 시절 고성리에 물을 뜨러 다닐 때 “활 맞은 돌이 있다.” 정도만 들었다. 실제로 그곳에 가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 당시 고성이라고 부르거나 마을 이름은 잘 모르고 ‘하귀/하귀 위’라고 불렀다. “하귀 위에 가서 물 먹자.” 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배신으로 삼별초군대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통정이 비극의 장수로 남는 것보다는 식수를 마련해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는 의도된 이야기로 전승될 수도 있다.

장수물 이외에도 군향동, 파군봉(바굼지오름), 진군마을 회군도로, 왜앗, 셋벵디, 장털왓, 옥터, 안오름, 붉은오름, 검생이왓(검술이왓), 장군이왓, 사장밭(활터), 살 맞은 돌 등 삼별초 관련 지명 설화가 남아 있다.

앞에서 논의한 항몽 관련 2차 구비설화의 화소와 전승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2〉 항몽 관련 2차 구비설화와 전승 지역

김통정 설화 분석	전승 지역
삼별초와 김통정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우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이야기	애월읍 우수암리, 고성리, 광령리, 장전리, 상귀리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 관련 이야기	애월읍 광령리, 장전리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우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김통정과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우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하귀2리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장전리, 상귀리, 하귀2리, 애월리

7) 김통정과 본풀이 관계

이상으로 1차2차 항몽 관련 구비설화와 전승 지역을 살펴보았으며, 구비설화 외에도 ‘당본풀이’로 전승되는 김통정 설화가 있다. 즉 김통정 설화가 제주도 당본풀이에 삽입된 것은 그 이야기의 생명력이나 변형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보고 서사무가에서 찾아보았다.

(1) 성산본향당 본풀이(성산읍 성산리)

이 자료에서는 김통정 장군이 여몽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성산본향당 당신이 되었다고 보았다.

[김통정 짐장수 만리토성 둘러놓고 동으로 일천명 서으로도 일천명 싸우레 들어와 가니 흔 착 손에 장두칼을 쥐여 동으로도 천명 서으로도 천명 쓰러눕쳐 성산 츠지흔 한집.]¹⁷⁾

17)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686.

(2) 광정당 본풀이(안덕면 덕수리 본향당)

김통정 설화에서는 모기로 변한 김방경의 손에 죽는데 광정당 본풀이에서는 광정당 당신에게 패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삼별초군과 여몽연합군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통정의 전술이 오히려 제주도 광정당 당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통정은 제주도 광정당 당신에게 죽는 것이다.

[큰성님은 과양당, 셋성님은 정의 서낭당, 말жат아시 대정 광정당, 식성제 뵈네다.

황바드리 짐통경이가 들어와 토성 싸고 호호마다 제 닷뵈 비 혼 즐리씩 세금을 받아, 토성 우의 제는 끌고 물꼴리에 비는 돌아매여 채를 주어 들리니 시상이 옥박하여 가난 과양당 서낭당 광정당 식성제가 짐통경을 심으레 간다.

짐통경이가 무쇄방석을 바당더레 데껴 놀아가 끌 아얏이니, 스신요왕은 새의 몸이 뵈여 방석을 심어 등기니 이젠 짐통경은 매가 뵈여 놀아난다. 과양당 큰성님이 조롬에 조차 놀아가 짐통경이가 목을 들른 틈에 비늘 틈으로 짚언 죽입테다.

이젠 식성제가 활을 쏘와 츠지홀 땅을 갈르느디, 큰성님은 활을 쏘난 정의 대정 새에 저 정의 대정 굽을 갈르고, 셋성님 쏘 활은 모관 정의 굽을 갈르고 말жат아신 모관 대정 새엘 쏘아 모관 대정 굽을 갈라, 큰성님은 모관 과양당에 좌정하고 셋성님은 정의 서낭당 좌정하고 말жат아신 대정 광정당 좌정하여 모관 정의 대정 츠지홀테다.]¹⁸⁾

두 편의 본풀이에서는 제주도 당신이 김통정보다 뛰어난 인물로 설정되었다.

(3) 초감제(동김녕 중당클 큰굿)

초감제에서 제주도를 알리는 대목이 있는데 김통정이 향파두리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김통정이 향파두리서 만리토성을 돌르던 섬입네다.]¹⁹⁾

18)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p.774~775.

19) 문무병 외(2001),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p.38.

Ⅲ. 맺음말

김통정은 외지(고려인)에서 들어온 역사적인 인물로 제주민들에게는 대몽항쟁의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즉 김통정은 제주출신이 아니면서, 저항의식을 소유했고, 제주도에 들어와서 최후를 맞이한다는 설화를 통해서 역사 속에 실재하는 인물이 전설화됐다.

1차 구비설화에는 김통정 가족의 최후 이야기가 채록되지 않아서 전승 정도를 살필 수 없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애월읍 유수암, 고성리’에서 ‘종신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김통정 모친이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하는 토굴인 ‘종신당 터’는 위치만 제보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이며, 지금은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크다. 또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마을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승해 줄 전달자가 줄어들고 있다.

또 하나 김통정 설화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당본풀이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김통정은 역사적 인물이나 설화의 주인공으로, 서사무가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아 있음을 보았다.

〈표 3〉 향몽 관련 구비설화의 전승 지역 비교

구비설화 유형	1차 자료 전승 지역	2차 자료 전승 지역
삼별초와 김통정 관련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안덕면 덕수리, 제주시 용담1동, 한림읍 옹포리	애월읍 고성리, 유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삼별초군이 토성 쌓는 이야기	애월읍 광령리, 제주시 외도1동	애월읍 고성리, 유수암리, 광령리, 상귀리, 장전리
삼별초군과 제주민의 협력관련 이야기	애월읍 어음1리, 제주시 외도1동	애월읍 광령리, 애월읍 장전리
삼별초군의 몰락을 예견한 이야기	애월읍 광령리	애월읍 고성리, 유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삼별초군의 최후 이야기	애월읍 어음1리	애월읍 고성리, 유수암리, 광령리, 장전리, 하귀2리
삼별초 관련 지명 이야기	애월읍 고성리, 어음1리	애월읍 고성리, 장전리, 상귀리, 하귀리, 애월리

〈표 3〉에서 보듯이 약 50년 동안 채록된 향몽 관련 구비설화를 분석한 결과 각 화소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자료의 분포 지역을 보면 김통정이 실제로 주둔했던 고성리와 주변 마을인 광령리, 유수암리에서는 설화의 생명력이 길고, 다른 지역에서는(덕수 등) 막연히 고성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정도로 전해들은 설화로 남아 있다. 약 750년 전

의 이야기가 토성 지역이나 주변 마을인 ‘광령리, 우수암리, 장전리, 상귀리’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봐서 삼별초 관련 설화는 구비전승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1차 자료를 확인한 후 혹시 제보자들이 더 기억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기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력도 감퇴하지만 역사적인 설화를 들려줄 대상과 그것을 재미있게 들어줄 대상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구전 자료를 문헌화해서 보존하는 일은 늦춰져서는 안 될 귀중한 과제이다.

항몽 관련 설화를 통해서 김통정 등이 항파두리성을 쌓았고, 삼별초군대를 지휘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약 75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구전되고 있음도 보였다. 역사 현장인 항파두리성 주변 마을에서 모든 설화의 화소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각 화소가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은 제보자들이 삼별초 관련 설화를 역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삼별초의 대몽항쟁 근거지인 고성주민들은 역사의 현장이며, 민중영웅이 활약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며, 김통정을 여몽연합군에 저항한 민중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통정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생각은 토성을 쌓을 때는 힘들었지만, 훌륭한 장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설화를 통해서 전승되고는 있지만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며 김통정의 항몽정신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아울러 21세기인 지금도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역사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적지로 여기고 있다.

우수암리의 제보자는 어린 시절에 김통정 장군의 설화를 듣고 자랐으며,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경청하는 대상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장전리 제보자는 자녀들에게 김통정 설화를 들려주고 기억하기를 바랐다.²⁰⁾

구비문학의 가치란 항몽 관련 설화처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본 화소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고성, 우수암, 장전, 광령 등 설화의 발생 지역에서는 김통정의 저항의식을 본받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화가 살아있는 설화라 할 수 있다.

여러 마을에서 항몽 관련 설화가 거의 원형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삼별초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제주도민들은 삼별초군을 대몽항쟁의 주역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몽에 대한 민중의식을 자주적인 민중의식으로 승화해서 계승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20) 김덕희(여, 1968년, 애월읍 애월리)와 김현욱(남, 1976년, 애월읍 하귀2리)은 하귀초등학교, 귀일중학교 학생 시절에 항파두리 지역을 다니면서 간단히 들었다. 또한 국사 수업시간에 고장 이야기라 조금 관심을 갖고 들은 정도이며, 특별히 어른을 통해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구비문학은 창작자와 창작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민중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므로 문학적 생명력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몽 유적지가 있는 마을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을 기억하고 영웅담을 전달하는 교신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런 요소는 지역사람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한다. 물론 김통정 설화 조사 지역이 삼별초항쟁이 있었던 인근 마을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그 마을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자부심과 결부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구비문학을 민중문학이라 하는데, 김통정 설화를 통해서 사건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삼별초항쟁과 고려군, 몽고군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채록자료를 통해서 김통정 설화의 어떤 화소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전승되고 있는지를 보더라도 향몽 관련 구비전승의 가치가 있으며, 특히 역사적인 인물을 재평가하는 보조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문무병 외(2001), 『제주도 큰곳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백록어문학회(2001), 『백록어문』 1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신동훈(2010), “사명당 설화에 담긴 역사인식 연구-역사인물 설화의 서사적 문법을 통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38, pp. 279-310.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조동일(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진성기(1978), 『남국의 전설』 (증보판), 학문사.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현용준(1976), 『제주도전설』, 서문당.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현용준, 김영돈(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